

아동복의 시대적 변천에 관한 연구

- 1960~2000의 결혼사진에 나타난 아동복을 중심으로 -

김 재 숙 · 이 미 숙[†]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복식은 인간행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한 시대에 그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착용된 복식은 개개인들의 심리적인 측면과 함께 그 사회구성원들의 전반적인 가치관을 나타내며, 또한 복식은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인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등의 전반적인 시대상을 반영하는 중요한 상징적인 측면을 지닌다¹⁾. 따라서, 어떠한 시기에 그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널리 착용되는 복식은 인간행동과 그 시대의 전반적인 문화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

근대 이후, 일제의 지배, 제 2차 세계대전, 6·25 전쟁 등으로 혼란했던 시기들 보냈던 우리나라는 196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의 집중적인 경제개발 계획으로 본격적인 산업발달이 시작되었다.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는 복식에도 영향을 미쳐 그전까지의 전통적인 한복에서 양복이 일상복화되었으며, 경제적 상황의 개선은 패션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켜 1960년대에는 국내 최초의 패션쇼가 개최되고 패션잡지가 창간되었으며, 최경자, 노라노, 앙드레 김 등 많은 디자이너들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우리나라 패션의 도약기라고 할 수 있다²⁾. 그 이후 급격한 산업과 경제의 발달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은 우리의 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또한 패션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6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의 사회변화와 패션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한국패션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복식과 문화와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앞으로의 패션경향을 예측하는데에도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의 저하는 자녀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가시켰으며, 이와 함께 아동의 의복 또한 점점 더 다양화, 패션화되고 있다³⁾. 최근 아동복 시장의 경향을 보면,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의류업계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시장은 오히려 고급화, 명품화의 경향을 보이며 많은 브랜드들이 속속 등장하는 등 빠른 변화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인 여성이나 남성의 의복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 반면, 아동복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아동복의 시대

[†]교신저자 E-mail evanms@hanmail.net

- 1) 김재숙, 송경자, 결혼사진에 나타난 남녀 결혼예복의 형태분석, 복식문화연구 11(2), (2003), pp 253-262
- 2) 금기숙 외, 현대패션 100년, (2002), 교문사
- 3) 김영은, 1990년대 아동복의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적 변화양상을 스타일, 형태, 색상 등의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 각 시대의 사회문화적 현상과 아동의복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변화경향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전신 정면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복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2000년까지의 결혼 가족사진을 연구자료로 선정하였으며, 각 사진에서 의복의 형태를 명확히 볼 수 있도록 정면의 전신모습이 촬영된 아동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결혼사진은 총 351장이었으며, 이중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의 수는 794명이었다. 각 아동의 의복은 상의, 하의, 외투, 신발 등 아이템별로 구분하여 의복의 스타일, 형태, 색상, 무늬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으로는 내용분석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SPSS 프로그램 (ver.11.5)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시대별로 아동복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60년대는 아동복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기성복형태로 판매되기 시작한 시기로 디자인이 다양하게 개발되지 못하여 성인의복과 비슷한 형태의 획일화된 단순한 디자인이 주로 보여졌다. 결혼식 상황임에도 대부분의 의복이 캐주얼 차림이었으며, 민무늬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체크무늬와 줄무늬가 제시되었다. 이 시기의 사진은 모두 흑백사진이었으므로 색상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1970년대에는 경제발전의 과도기로 패션에 대한 관심이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난 시기이다. 아동복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고유의 의복형태가 제시되지 못하고 성인의 유행경향을 그대로 반영한 칭바지, 판탈롱(나팔바지), 프릴 달린 원피스 등이 착용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비교적 디자인이 다양해지고 다양한 색상과 무늬가 사용되었으며 장식적인 측면이 발달된 것이 아동복에서의 발전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에는 결혼식이라는 상황적 측면을 고려하여 격식차림을 한 아동의 수가 전 시기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의복형태와 스타일이 다양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격식 차린 의복과 함께 운동화가 착용된 경우가 많이 보여, 아동에게는 상황적 적절성에 대한 측면이 중요하게 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1980년대에는 아동복 디자인이 개성화되었으며, 성인과 차별화된 의복형태를 보이고 있어 아동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관심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늬와 색상의 사용은 전 시기보다는 덜 다양해지고 지난 시기에 보여졌던 과도한 장식적인 디자인이 사라지고 단순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이 주류를 이루었고 남아와 여아의 의복스타일이 차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결혼식상황에 따른 격식차린 의복을 착용한 아동의 수는 오히려 지난 시기에 비해서 감소되었다.

넷째, 1990년대에는 아동복이 패션화, 고급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기로 유·아동복 시장에서 고가의 수입브랜드가 등장하고 유·아동복 시장이 더욱 세분화, 전문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 시기에 비해 의복과 어울리는 모자, 가방, 신발 등의 각종 소품이 다양하게 발달되었으며, TV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등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캐릭터의 사용이 이 시기의 아동복에서 특징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의복스타일 또한 더욱 다양화, 개성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결혼식이라는 상황에 맞게 아동복에서도 격식차린 의복형태가 더욱 발전하여, 성인과 같이 한복이 예복화되어 등장하였고 격식차린 의복도 다양한 스타일로 제시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현상은 복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아동복은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1990년대 후반의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로 현대에 와서 빠르게 발전하였다.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의 증가는 아동복의 고급화, 패션화 경향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아동복시장에서 보여지는 명품브랜드의 등장과 차별화된 스타일의 제시하는 다양한 브랜드의 대거 런칭이 그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아동복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환경친화적인 기능성 소재의 사용과 디자인의 개발, 그리고 염색과 가공방법 등이 아동복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것으로 예측된다.

참고문헌

- 금기숙 외 (2002). *현대패션 100년*. 교문사.
- 김영은 (2001). 1990년대 아동복의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숙, 송경자 (2003). 결혼사진에 나타난 남녀 결혼예복의 형태분석. *복식문화연구* 11(2). pp. 253-262.
- 신혜순 (1995). *한국패션 100년*. 한국현대의상박물관.